

# Public Practice and Christian Education for Covid-Generation: Uncanny and Incarnational Solidarity\*

Yunsoo Joo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ristian public practice in the post-COVID era, seeking to overcome the uncanny feeling caused by increased division and exclusion during the pandemic period. Firstly, we will investigate the unequal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r market and examine ways to achieve economic justice in the post-COVID era. Subsequently, we will deliberate the role of Christianity in establishing publicness in the digital world and virtual spaces. Finally, viewing COVID-19 as a catastrophe caused by an anthropocentric worldview and exploitation driven by greed, we will explore the tasks of Christianity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Anthropocene. Christian public practice should fulfill its mission of care and stewardship not only in social context but also in an ecological dimension. The author proposes “planetary citizenship education” for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human species and the Earth they inhabit.

## Key Words

Uncanny, logic of others, Solicarity, 4th industrial revolution, metaverse, Anthropocene, planetary citizenship education

---

Received June 4, 2023   Revised June 28, 2023   Accepted June 29, 2023

Author : Yunsoo Joo, Professor,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yunsoojoo@gmail.com

\* This work was presented at 2023 Spring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 코로나세대 공적 기독교교육의 방향성 연구 : 언캐니(Uncanny)와 성육신적 연대\*

주연수\*\*  
(부산장신대학교)

###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팬데믹 기간 타자에 대한 경계, 배제와 분열이 심화된 것이 언캐니(uncanny)와 ‘타자의 논리’라는 심리·사회적 기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언캐니를 극복하고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독교 공적 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계층과 집단별로 불평등하게 전개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정의 실현 방안을 살펴본다. 이어서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문제를 고찰하고 디지털 세계와 가상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 끝으로, 코로나19는 인간중심적인 세계관과 탐욕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한 재앙이라 보며, “인류세(anthropocene)”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가 기여해야 할 바를 조망해본다.

**결론 및 제언** : 기독교 성육신의 영성은 자기비움, 공감적 소통, 자-타아의 경계를 초월한 연합의 정점으로서 코로나 세대 기독교 공적 실천의 토대가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 공적 실천은 하나님, 사람, 자연의 완전한 사귀이 실현되도록 생태학적 차원에서 돌봄과 관리의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인류종 전체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행성시민교육을 제안한다.

### 〈 주제어 〉

언캐니, 타자의 논리, 연대, 4차산업혁명, 메타버스, 인류세, 행성시민교

□ 2023년 6월 4일 접수, 2023년 6월 28일 심사완료, 2023년 6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3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강연으로 발표되었음

\*\*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yunsoojoo@gmail.com

## I. 들어가는 말

벡(Beck, 2010, 304-318)은 글로벌 위험사회론에서 글로벌 전염병의 확산이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을 강화하여 국제적 연대를 촉진할 것이라 보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자 강대국들은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협의체들이 협력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실제적인 글로벌 연대와 협력은 미약하였고 오히려 국가 간, 계층 간, 집단 간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소수자와 취약집단을 향한 배제와 혐오, 적대행위는 악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코로나19는 초국경적 이슈이고 글로벌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나 강대국들은 자국이익 증진에만 몰두하며 코로나 발생지 논쟁을 일으켜 오히려 분란을 격화시킨 면이 있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에 압도된 대중들은 특정 집단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낙인찍으며 혐오, 차별, 대립 같은 반연대적인 경향으로 치달곤 하였다(김윤중, 2020; Han, 2020). 팬데믹을 직면하여 인류는 분열의 길과 글로벌 연대의 길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지젝, 2020; 하라리, 2020).

본 연구는 팬데믹 기간 타자에 대한 경계, 배제와 분열이 심화된 것이 언캐니(uncanny)와 '타자의 논리'라는 심리·사회적 기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언캐니를 극복하고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 공적 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언캐니는 낯설음,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뜻하는 심리적인 개념으로 출발하였는데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사회학적, 과학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인간은 낯선 것을 직면하여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타자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대중들은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 위험이 문제 있는 외부 집단 혹은 타자(the others)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관념을 형성하고, '○○ 돌림병'이나 '○○ 질병'과 같은 표상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제를 통하여 위험을 외부집단과 결합시킴으로서 자신은 위험으로부터 별개라고 믿어 불안을 달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의 지배자들은 자아-타자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적 효과를 가지므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주변 집단을 타자화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대중들을 호도한다(Joffe, 2002, 45-50).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음모론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나 아닌' 반응, '타자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메카니즘은 필연적으로 타자로 대상화된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조페(Joffe, 2002)는 이러한 현상이 원시부족사회로부터 현대글로벌사회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모든 문화에서 빈번히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팬데믹 시대 연대를 저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제가 위험에 직면한 인간이 유한자로서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에서 기인하고, 이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위해 약자들을 타자화하고 폭력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독교가 대중들을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이며 또한 종교가

사회에 공헌해야 할 부분이다. 기독교 성육신의 영성은 자기비움, 공감적 소통, 자-타아의 경계를 초월한 연합의 정점이라 할 수 있기에 이를 토대로 코로나 세대 기독교 공적 실천의 과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론은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동안 경제·사회 영역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분석한 후 코로나 세대 기독교적 연대를 위한 공적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코로나 19가 경제 영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계층과 집단별로 불평등하게 전개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용자 네트워크와 솔루션 샵(solution shops)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패턴이 변화될 때 국가 간, 계층 간, 집단 간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이 가속화되고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노동의 댓가를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며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 공적실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어서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문제를 고찰하고 팬데믹의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시킨 4차 산업 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세계와 가상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가 디지털 활용의 윤리와 가상세계에서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공적 실천과 연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코로나19는 인간중심적인 세계관과 탐욕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한 재앙이라 보며, 보다 확장된 담론인 “인류세(anthropocene)”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가 기여해야 할 바를 조망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적 실천을 위한 기독교교육으로 행성(planet)시민교육을 제시한다.

## II.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와 공적 실천

### 1. 팬더믹과 언캐니: 분열 VS. 연대

언캐니는 독일어 “das unheimlich”를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처음 프로이트(Freud, 2003)가 낯설음,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뜻하는 심리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한국어로는 정장진(2003)이 “두려운 낯설음”으로 번역하였다. 프로이트(2003, 126-134)는 언캐니를 인간이 동물적인 즉물성을 벗어나 문명화하면서 낯선 상황을 직면할 때 거세 위협과 관련된 가장 원초적인 어떤 것이 귀환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정의하였다. 라캉(Lacan, 1994)은 프로이트 이론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등의 생리학적 요소들을 위상적 위치로 바꾸어 해석하였다. 라캉은 실재계, 상상계, 상징계라는 세 가지 층위론을 제시한다.

첫째, 실재계는 인간과 세계가 어떤 분리나 분열 없이 물자체적인 합일을 이룬 심리적 층위로 인간의 존재적 실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 둘째, 상상계는 인간이 세계를 자기반영적인 이미지로 파악하면서 세계와 첫 분리가 일어나는 심리적 층위를 뜻한다. 셋째, 상징계는 인간이 세계를 객관적인 의미체계로서 경험하는 심리적 층위로서 인간이 상징적 언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형성된다. 세 층위는 서로 맞물려(interlaced, intertwined) 현현하는데, 언캐니는 상징계의 열린 구조에서 영원히 상실된 것이어야 할 삶의 궁극적 차원이 어떤 기표를 통해 실재계적 권위를 주장할 때 상징계적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불안감이다(Lacan, 1994, 93-103).

언캐니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사회학적, 과학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낯선 것을 직면하여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타자를 죽이거나 쫓아내는 폭력적인 배제를 통하여 처리해왔는데, 불행히도 그 대상은 대개 소수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었다(신지은, 2011, 155-156). 폴 드 만 (de Man, 2010, 205, 206)은 원시인이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를 “거인”이라 부르며 자신보다 크고 강하다고 착각하여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인간은 낯선 타자에게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포를 일으키는 타자를 괴물로 취급하며 배제시킴으로써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위험에 직면하여 사람들이 그 위험을 야기한 존재는 ‘나 아닌 타자’라는 독특한 반응을 보이며 위험을 외재화시키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현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나와 다른 대상을 타자화하여 폭력적으로 배제한 예는 제국주의 시대 원주민들에 대해 식민지인들이 취했던 폭력에서 잘 드러난다. 이밖에도 소수자 연구들은 (e.g. 오리엔탈리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발턴 연구, 이주민 연구, 이방인 연구) 역사적으로 소수자들이 어떻게 타자화되어 폭력적인 배제의 대상이 되었는지 잘 보여 준다(신지은, 2011).

조페(2002)는 이러한 메카니즘을 ‘타자의 논리’라 명하며,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역사적으로 대중들은 위험의 원인인 타자로 규정된 집단을 자신들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자기 집단의 순수성, 무고함, 안녕을 보존하려하려고 시도해왔다(Joffe, 2002, 45-50). 그녀의 비교문화연구에 따르면 AIDS가 큰 위협으로 인지되던 시점, 서양에서는 에이즈를 ‘케이 돌립병,’ ‘아프리카 질병’으로 표상을 형성하여 대중에게 유포한 반면, 남아프리카인들은 오히려 에이즈가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전파된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타자라는 표상을 만들어 위험의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자아와 자기 집단은 무고하고 순수하기에 위험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믿음으로써 불안을 피하고자하는 무의식적 기제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나 아닌’ 반응, ‘타자가 비난 받아야 한다’는 반응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빈번히 나타났는데, ‘타자’는 일반적으로 지배 집단의 밖에 있고 암묵적으

로 지배 집단에 종속된 자들이었다(Joffe, 2020, 6-10). 사회문화적으로 ‘타자’는 ‘열등하고, 더럽고, 혐오스럽고, 시끄럽고, 오염된’ 자들이라는 이미지로 통용되며 대중들은 이를 통해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을 정당화한다(Joffe, 2020, 45-73).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 세계 곳곳에서는 ‘○○폐렴’, ‘○○코로나’와 같이 특정 지역과 해당 지역의 사람들을 낙인찍고 비난하며 멸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정 인종과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자 강대국들은 말로는 연대를 강조하였으며,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협의체들이 협력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G20 특별 정상회의, 세계 정당 연합체들인 중도민주주의 인터내셔널(CDI), 진보동맹(PA),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등이 소집되어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하였고(G20, 2020; 강수택, 2020, 192), 유럽연합은 ‘코로나19 유럽연합 연대기금(Covid19-EU Solidarity Fund)’을 조성하였으며(EU Commission, 2020), 한국, 일본, 중국도 특별정상회의를(2020) 개최하여 코로나19 아시아 대응 기금 설립을 합의하였다. 이후 2020년도 12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동방협)를 결성하여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기도 하였다(외교부, 2021).

하지만 그 이면에서 선진국들은 실제로는 자국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강화시켰고, 시민들의 국가 간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쟁쟁조약이 작동하는 유럽에서조차 국경통제가 이루어졌다. 국경의 일시적인 봉쇄와 통제를 반연대적인 고립주의 경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글로벌 연대를 거부하고 자국이익의 증진에만 열중하는 국가들이 있었음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강수택, 2020, 195). 이 기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협력적 리더십은 약화되었고,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득을 규제하는 내용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법안 2021(The Protecting Sensitive Personal Data Act of 2021)”을 상원에 제출하였다(Cullison, 2021).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년 5월 18일 세계보건총회 연설에서 글로벌 방역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인류보건건강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실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불량 마스크와 정확도가 30%에도 못미치는 진단키트를 배포하자 이를 제공받은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핀란드, 인도, 필리핀, 파라과이가 중국산 의료물자를 리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김향미, 2020; 이기현 2021). 동방협은 미중 전략 경쟁, 자국 보호주의, 코로나 방역 보건 수준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국제적 협력에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내었다(황태연, 2021, 7).

## 2.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와 공공성

코로나로 인한 봉쇄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불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018년 철강제와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였고, 2019년 자동차에 대한 안보 셰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는 등 자국 무역 보호정책을 펼쳐왔다. 중국 또한 국가운영체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세계 질서의 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어왔다. 팬더믹을 겪으며, 양국은 코로나19 발원지 논쟁을 통해 분열과 대립을 격화시켰고 무역 분쟁을 악화시켰다. 선진국들은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정책을 신보호주의와 결합시켜 극단적인 억제정책을 추진시켰고 이는 곧 경제둔화로 이어졌다(유재덕, 2020, 15). 세계 각국은 단지의학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안보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구조화하였다(최낙균, 2020, 55-66). 글로벌 공급망의 연결고리가 급작스럽게 깨어지면 다른 연결고리도 연쇄적으로 부서지는 위험이 발생하여 모두가 위기를 경험하지만, 그 타격은 상품생산을 담당하는 저소득국가와 노동자들에게 더욱 극심하게 미친다(강화명, 2021, 313).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면서 해외공장이 재배치되는데, 소위 채찍효과(Bullwhip effect)에 따라 부품 및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저개발 국가일수록 수요변화에 따른 충격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최낙균, 2020, 63).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계층과 집단별로 불평등하게 전개되었다. 여성 집중 직종의 노동자와 저임금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더욱 빈번히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며, “she-cession”으로 불리는 여성 집중 직종 즉, 보육, 교육, 판매, 대인서비스, 식당홀서비스 같은 대면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직이 훨씬 광범위하게 일어났다(DDG/P Office and OECD, 2020; 윤자영, 2021, 76).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돌봄노동의 중요성은 부각된 반면, 지금까지 돌봄노동이 가족 내 여성의 무급 노동으로 인식되어왔던 영향으로 여전히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드러났다(윤자영, 2021, 58). 노동의 힘듦에 비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돌봄노동은 남성과 여성 간 재분배되기보다는 저소득 여성과 고소득 여성 간에 재분배되는 경향을 보였다. 돌봄노동을 둘러싼 성별 갈등이 계층적·인종적 불평등으로 전개된 것이다(윤자영, 2021, 70). 결과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국가 간,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저소득계층, 빈곤국가, 여성, 기술박탈계층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스타벨과 휘젤스테드(Stabell & Fjeldstad, 1998)는 세계 경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밸류체인(value chains)은 제조업에서 생산된 원자재와 제품이 유통과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둘째, 사용자 네트워크(facilitated user networks)는 운송, 통신, 보험, 금융과 같이 고객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셋째, 솔루션 샵(solution shops)은 컨설팅회사, R&D, 전문서비스처럼 특정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턴은 제조업에 기반한 밸류체인 모델은 약화되고 사용자 네트워크와 솔루션 샵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 예측된다(최낙균, 2020, 54-55). OECD(2020)는 세계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디지털화에 따라 선진국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세계무역과 생산거점이 선진국으로 재배치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생산지가 판매시장에 근접한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생산의 로컬화(localize)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이는 판매시장이 큰 선진국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 반면 저소득국가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기도 하다.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 간, 계층 간, 집단 간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분야에서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고 경제 정의를 확립하는 연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적 실천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것이다.

### III.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와 공적 실천

#### 1. 코로나19가 사회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는 “코로나블루(Corona Blue),” “코로나레드(Corona Red),” “코비디보스(Covid divorce)” 등의 관련 신조어들을 양산할 만큼 다양한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황선희, 2021, 8).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바이러스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퍼지겠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이 훨씬 크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구조로 인하여 유급휴가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육체노동, 단순노동, 일용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직률이 훨씬 높을 뿐 아니라(황선웅, 2020, 15-26), 저소득층은 의료시설이 미비하고 과밀한 환경에 거주하기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도 높고 제때에 치료받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첫 코로나19 확진자 2,249명 중 35%가 유색인종이었으며, 미국 시카고 지역 코로나19 사망자의 72%가 흑인이었고, 뉴욕의 경우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코로나19 치사율이 부유층 거주지역보다 15배 가까이 높다고 보고되었다(이경탁, 2020; 최은경, 2020).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상황과 이로 인한 두려움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와 범죄로 표출되곤 하였다. 코로나 기간 중 가정 내 약자인 아동과 노인의 학대, 여성이나 소수민족을 향한 혐오범죄는 큰 사회문제로 부각 되었다. 코로나 유행 중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여성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급증한 점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앙자살예방센터(2020)에 따르면 2020년 남성 자살사망자 자살률은 ('19년) 9,730명 → ('20년) 9,093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성 자살사망자 자살률은 약 7.1% 증가하였다(박성민, 2020; 윙필드헤이, 2021).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사회적 소수

와 취약 집단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심리적 언캐니가 사회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 2.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세계와 공공성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면서 무인 운송수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I, 로봇공학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초연결’ 시대의 도래를 촉진하며 ‘디지털세계’라 일컬어지는 온라인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졌다(양금희, 2021a, 13).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재택근무가 일상화 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혼종적 교회(Hybrid Church)’가 교회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올라인(All-line)’ 예배와 교육은 교회 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의 양식이 되었고,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태어나 온라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에게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이라 불리는 기성세대에게도 온라인은 필수적인 삶의 일부가 되었다(신현호, 2022, 268). 디지털 네트워크 공동체는 이미 사회 안의 한 사회가 되었으며 가상공간은 ‘현실 너머’에 있는 ‘허구’가 아니라 현실의 일부분이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운데 새로운 사회문제도 대두되었는데, 디지털 기술 박탈계층이 불이익을 겪게 되는 또 다른 차원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2020년 5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2%가 온라인수업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초중고 온라인수업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온라인 수업이 공교육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되면서 학부모와 교사 대다수는(응답자 중 63.8%) 교육불평등이 악화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코로나19발 교육격차 심화로 인하여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고는 또 다시 주요한 공적실천의 과제로 부각되었다(사교육걱정없는 세상, 2020).

또한, 코로나 기간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사회 문화가 확산되면서, 현실세계의 좌절, 분노, 공포,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온라인 공간에서 적대행위로 표출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가상공간에서 특정 요소를 지닌 표적 집단을 적대시하고, 비하·모욕·차별·폭력을 선동하는 언행은 피해자나 피해 집단에 대하여 극심한 폭력의 실체를 갖는다(이희옥, 2022, 195). 온라인 공간을 가상세계라 하여 허구로 취급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가상세계에 현실의 삶을 투영하고,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삶의 모습을 구현하며, 이는 다시 현실세계와 연결된다(Bessière, Seay, & Kiesler, 2007). 코로나 기간 동안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정치인은 선거캠프를 열고, 연예인은 공연하였으며, 대학들은 입학식을 개최하였다(양

금희, 2021b, 49). 이와 같은 사례들은 현실의 경제와 사회, 문화 활동이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가상의 경제와 사회, 문화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이지혜·주정민, 2022, 102-103). 이용자들은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표현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투사하거나 다양한 정체성을 실험한다(Griebel, 2006).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상세계에서의 사회체계와 자아 발달 간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급속도로 증진되었다. 신기술과 디바이스의 진화로 인해 다차원적인 공간이 현실세계를 대체하거나 현실세계와 직접 연계됨에 따라 적대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따른 현실세계에서의 파급효과도 커진다. 특히 메타버스는 3차원적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현실감있는 동작 행위로 폭력이 표출된다는 측면에서 아바타 뒤에 존재하는 현실세계의 개인과 집단에게 실제적인 중대한 위해가 된다(이희옥, 2022, 193). 그러나 아바타의 행동으로 표출된 폭행 행위는 현실세계에서 수반되는 신체적 접촉이 없다는 점에서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적대적 언행의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기도 모호하여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이희옥, 2022, 193-195). 또한, 법적 제재가 지나칠 경우 가상인물인 아바타의 개성, 개인의 인격발현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위험성도 있다(이희옥, 2022, 213).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상세계는 공동체 규율로서 기능할 윤리와 공공성, 자율적인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메타버스의 주된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인 10대에 집중돼 있기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상세계에서의 윤리, 공공성 확립을 위한 교육은 더욱 시급히 요청된다.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Z세대의 경향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 참여자 간 상이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0대들은 아바타에 현실의 모습을 투영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변모하며 새로운 자아를 실험해보는 멀티 페르소나적 성격을 보인다. 반면, 20대는 자신의 외모와 비슷하고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담은 캐릭터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고정민·박지연, 2022, 30). 그 밖에 10대들은 가상공간의 캐릭터가 현실의 나와 일치하는데 오히려 우려를 보이며 비노출이라는 특징을 활용해 자신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복수의 계정을 가지고 “제 3의 인물”을 설정하여 활동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나 20대들은 현실세계 사회관계의 확장으로서 의사소통 범위를 확대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표출하는데 가상공간을 활용한다(이지혜·주정민, 2022, 102-110). 20대는 자신의 정체성이 정립된 상태로 플랫폼을 이용하기에 현실의 자아를 더 투영하지만 10대는 정체성이 정립된 상태가 아니라 샌드박스(Sand box)처럼 플랫폼에서 다양한 자신의 정체성을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프만(Goffman, 1959)은 그의 사회적 상호작용론에서 사람들은 실제 사회적 상황 아래서 마치 연극의 한 형태인 것처럼 자아를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연극 무대의 배우처럼 개인들은 다른 청중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때 전면과 후면, 두 개의 무대

영역이 있는데, 전면 공간에서 사람들은 다른 이의 관찰을 의식하여 규칙과 관습을 준수하며 공연에 임하지만, 후면 영역에서는 무대 뒤에서와 같이 배경과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자유를 누린다. 고프만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20대들은 가상공간을 전면으로 인식하고 전략적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를 하는 반면, 10대는 후면영역과 같이 사회적 역할을 벗어 버릴 수 있는 사적인 영역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10대들이 메타버스를 후면으로 인식하여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자 자아나 이미지가 모순된 행위들을 벌일 수 있는 숨겨진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부계정을 이용한 일탈행위가 더욱 빈번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10대 일수록 가상세계에서의 언행이 이용자의 현실적 자아정체성, 자아인식과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더욱 주의가 촉구된다(Gentile et al., 2009; Greitemeyer & Osswald, 2010; Yoon & Vargas, 2014).

메타버스는 고도화된 샌드박스처럼 이용자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고 또 허물 수 있어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최은진·이영숙, 2021). 또한 가상공간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정체성을 구성하고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이원일, 2022, 22). 따라서 지나치게 경직된 일괄적인 규제가 아니라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 조화로운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규율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적 기능이 약화된 후기 세속 시대에 기독교가 문화와 소통하며 공적 선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캠벨(Campbell, 2013)은 다양한 온라인 교회가 시도되고 있는 시대에 미디어 기술을 통한 신앙의 왜곡과 변화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였다. 레인골드(Rheingold, 1993)는 The Virtual Community 에서 온라인 공동체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참여,” “협업,” “네트워크 지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참여자로 온라인 공동체 문화를 이끌어가야 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종교(digital religion)가 출현하고 디지털 실존 양식에 의해 인간의 존재 양식도 재구성되고 있다면(김승환, 2022; 성석환, 2021), 가상세계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담론을 주도하고 가상공간에서의 공공선(common good)을 실천하는 것은 코로나시대 기독교 공적 실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IV.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성육신적 연대

### 1. 언캐니와 성육신적 연대

프로이트는(2003) “낯선,” “놀라운,” “두려운”의 뜻을 가진 언캐니(Uncanny)를 캐니(Canny)라는 단어의 의미인 “친근한,” “집 같은,” “낯익은” 것으로부터 출발한 감정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언캐니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숙한 감정인 모태회귀 욕망이 초자아의 등장으로 자아에 두려움으로 변형되어 느껴지는 감정이다(박언영, 2018). 언캐니가 가지는 어원의 양가성(ambivalence)은 캐니와 언캐니, 낯익음과 낯설음, 자아와 타자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언캐니를 극복하는 것은 자아와 타자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인식하고 타자가 곧 자아와 하나로 연결된 우리라는 점을 깨닫는데 있다. 자아와 타자의 경계는 인위적이고 작위적이며, 우리는 나와 너,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와 비생명체로 구성된 환경이 서로 밀접히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그물망(web of life)” 안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나와 다른 이들과 공감하고,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해 자신을 개방하고, 상호연계성 가운데 상대방의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팬더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 초국가적이고 범사회적인 연대가 중요하였으나, 두려움은 타인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과 혐오감으로 비화되어 연대 영역을 위축시켰다.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극복하는 것은 곧 언캐니를 극복하고 연대로 나아가는 핵심이다. 성육신은 신-인이라는 절대적 차이와 간극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성육신의 핵심은 신이 인간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신적 속성을 버린 하나님의 케노시스이다(장신근, 2021, 61-64). 절대적인 질적 차이를 극복하고 창조주가 창조하신 세계에서 피조물과 함께 거하신 미증유의 연대인 것이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동안 한국교회는 그룹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회와의 소통을 잃어버리고 성육신적 연대를 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는 자-타의 이분법에 갇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탈육신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자기를 비우고 전 인류를 품는 공공의 연대, 두려움과 공포를 연민과 사랑으로 극복하는 성육신의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

## 2. 인류세

코로나19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인간과 동물 거주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80년간 발생한 전염병은 대부분 인수공통감염병이고 그중 70%는 자본주의의 과도한 산림개발로 인하여 서식지를 잃고 사람이 사는 곳에 가까이 온 야생동물에 기인한 것이었다(김명자, 2020, 41). 특히 신자유주의가 확산된 지난 30년간 300여 개의 인수공통감염병이 출현하였다고 한다(리프킨, 2020, 201-202). 학자들은 설령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기후위기와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 새로운 바이러스가 3~5년마다 출현하여 우리의 삶을 위협하리라 예측한다(최재천 2020, 25-

28). 작금의 위기는 이윤과 개발로 치달은 경제 질서가 부른 구조의 위기이며, 부의 논리에 함몰되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집약적인 공장형 산업으로 인간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자본화된 공업화가 초래한 비극이다(리프킨, 2020, 201-202). 인수공통전염병의 지속적 창궐은 단순히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인 인간의 물질적 탐욕, 인간중심적 세계관부터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 일이다.

인류세(anthropocene)는 지구에 “거시기생”하는 인간이 근대화 과정에서 생명권(biosphere)에 극심한 교란을 일으켜 생태계 전반의 패턴을 변화시키며 행성 자체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의미이다. 인류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anthropos”와 새롭다는 뜻의 접미어인 “-cene”, 그리고 지질학적 단위인 “epoch”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개념이다(Crutzen & Stoermer, 2000, 14). 지질학계에서는 지구의 46억 년 역사를 누대(eon), 대(era), 기(period), 세(epoch)로 세분화하여 기록한다. 2019년 국제지질학연맹(IUGS)은 20세기 중반을 인류세의 기점으로 삼을 것을 ICS에 공식 제안하였다. 인류세가 하나의 시대로서 이전 홀로세(holocene)와 뚜렷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다. 우주의 거대한 폭발, ‘빅뱅’이라 불리는 우주의 시작은 약 138억 년 전으로 추정되며, 호모 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 지구에 출현하였다고 본다. 우주의 역사를 1년의 시간에 맞추어 제시한 우주력에 따르면 인간의 출현은 12월 31일 23분 48초로 환산되며 고작 몇 초를 차지하는 사건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수백만 종 중 한 종에 불과한 인간은 지구에 전례 없는 영속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파괴력을 보였다.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과도한 탄소 발생으로 인한 지구 순환주기 변화, 핵무기로 인한 방사능 낙진, 플라스틱 등 광범위한 쓰레기와 이로 인한 토지, 해양, 공기의 오염, 인간 외 생물들의 서식지 파괴, 수많은 생물의 멸종 등이 그 예이다. 인간의 행위로 인해 물, 토양, 공기가 오염되고 나아가 생명의 본질 자체가 파괴되고 영구히 사라졌으며 이제 인간 자체의 존립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엘리스, 2018, 27-28). 2020년 말 출간된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30주년 기념호의 제목은 “다음번 프론티어: 인간개발과 인류세”이다. 인간의 생존에 대한 최대 위협은 인간 자신이라는 거대한 패러독스를 화두로 제기함으로써, 국제 거버넌스의 현장에서도 인류세의 진입이 공식화된 것이다(차태서, 2021, 37).

인류세 개념을 발명한 과학자들은 지구의 “여섯 번째의 대멸종”은 기존에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다섯 차례의 대멸종과는 달리 인간이 추동하는 비자연적인 멸종이 될 것이라 경고한다(Kolbert, 2014). “행성적 한계(planetary boundaries)”란 인간이 유발한 환경적 변화를 지구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지구 시스템은 “억제 피드백(negative feedback)”과 “강화 피드백(positive feedback)”이 작동하여 균형을 잡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방향으로 강화 피드백이 계속되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인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지나 “체제이동(regime shift)”에 이를 수 있다(엘리스, 2021, 4 1-42). 인간이 야기한 변화가 티핑포인트를 넘어서고 기타 복잡한 피드백 효과를 불러오면 그 변화는 급속도로 가속화되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제는 인류가 어떻게 행성적 생존의 지속이 가능한 “안전 작동영역(safe operating space)” 내에서 활동할 것인지 이다.

몰트만(Moltmann, 2017)은 생태학적 창조론에서 세계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강조한다. 창조자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운명에 참여하고, 피조세계 전체와 피조물 안에 거하시며, 피조물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Moltmann, 2017, 150-157).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 하나님이 빌려준 것으로서 인간이 받을 수 있고 충실하게 관리해야 할 성격의 것이다”(Moltmann, 2017, 56). 창세기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지배자가 되어 다른 피조세계를 훼손하고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평화로운 생태 공동체로 가꾸고 돌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Moltmann, 2017, 58-63). 몰트만(2017)은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착취한 것은 절대적 주체자인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관계없이 전적인 타자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불연속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기계론적 이분법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을 사유하는 정신으로, 자연을 물질로 나눈 데카르트(Descartes)의 이원론은 하나님과 세계를 구분하던 신학적 해석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하고 지배하는 행위를 합리화 하였다(이항순, 2022, 111). 몰트만(1990)은 그리스도를 우주적 그리스도로 이해한다. 몰트만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거로서 통치와 보존을 주도하는 그리스도요, 그의 구원은 전 우주적 차원의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진 화해는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포괄하는 전 우주적 차원의 화해인 것이다(Moltmann, 1990, 389-427). 인간과 자연은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 정신과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사킴”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성 가운데 존재한다.

인류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판적 성찰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인류는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하며 수백만 년을 지속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 동참하여 생태학적 차원에서 돌봄과 관리의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우주적 구원을 통하여 이제 인간과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 공적 실천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킴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완전한 사킴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 3. 기독교교육학의 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타의 이분법에 근거한 지배적 사고에서 벗어나 탈자아중심적 존재론, 관계론적 존재론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정의가 실현되고, 디지털 세계에서 공공성이 확립되며,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인간-창조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교육은 인류종 전체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행성시민교육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차크라바티는 “행성”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지구화”라는 용어가 인간의 행위성에 의한 구성물을 암시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Burke et. al., 2016). 유사한 맥락에서 필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가 인류와 “인간 너머 세계(more-than-human world)”와의 조화로운 관계와 공존을 위한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행성시민교육을 제안한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다종적 얽힘(multi-species entanglements)”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인간은 동종 인간 뿐 아니라 동물, 식물, 바이러스와도 상호 연결된 “다종적 배치(multi-species assemblage)”의 일원으로 살아간다(Connolly, 2013).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 전체가 불가분 연계되어 있는 창조 세계에서 서로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이며 우리의 관계성은 우주적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감수성 뿐 아니라 자연의 고통과 신음에도 공감하는 감수성을 함양해야 한다.

인류가 지구에 끼친 악영향은 호모사피엔스의 생물학적 조건보다는 거주방식, 자원소비, 경제패턴 등의 사회적 조건과 더 큰 관련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인간 사회가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과 양에는 국가별, 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의 절반 정도이고, 인도는 미국의 10분의 1, 아프리카 몇몇 국가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구상에서 극소수의 인간만이 자동차, 나이가 제트기를 타고 여행하는 에너지 집약적인 행위를 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한다. 결론적으로 부유한 국가,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훨씬 많이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활방식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몇몇 사회학자들은 지구 파괴의 비난을 인류 전체에게 돌리는 듯 한 인류세라는 명칭보다 오히려 자본세(Capitalocene)가 적합하다고 주장한다(엘리스, 2021, 219-223). 자연 파괴의 책임이 부유한 나라와 계층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목도하였듯이, 지구의 환경적 파괴에 기인한 고통은 가난한 나라, 경제적 취약계층이 훨씬 극심하게 겪는다. 인류세는 경제적 구조의 문제이고, 복합적인 불평등과 정치의 문제이며, 인간의 탐욕과 책임에

대한 윤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교육은 행성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행성적 차원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기독교교육은 성육신적 연대 의식을 확산하고 지향하는 교육이다. 기독교교육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공감의 영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탐욕에 제동을 걸고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윤리와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탈중심화된 개방성을 가지고 공적 담화와 교차학제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스테르담 선언(2001)은 “지구시스템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간적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자기 조절적 시스템으로 작동” 한다고 명시하였다. 지구의 환경변화는 다차원적이며, 여러 차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지구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다차원적 노력과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암스테르담 선언을 도출한 2001년 국제지권생물권계획 회의에 1400명이 넘는 각계 각층의 회원, 과학자, 정책입안자, 자원관리자, 언론인 등이 모두 참석한 이유이다(엘리스, 2021, 61).

인류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 지질학, 기후학 등의 과학 분야, 인문, 사회, 종교 분야의 교차학제적 대화와 초학제적 연합이 필요하다. 전 지구적 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한 환경적 교란의 원인이 다차원적이라면 해결책 또한 초학제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교차학제적 대화에서 과학은 지구 시스템이 티핑포인트에 도달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해설을 제공해줄 수 있다. 정확한 과학적 자료를 기초로 정책입안자들은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지구적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인 인간의 탐욕, 불평등,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는 종교가 기여해야 할 영역이다. 인류세가 현재의 위기에 이르기까지는 종교적 서사의 방식, 즉 인간을 자연과의 동반자로 이해하는가, 관리자 혹은 지배자나 파괴자로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1장 26-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였는가 인간의 번성과 풍요의 추구, 자연에 대한 지배 등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학적 해석과 재해석이 인간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거나 정당화하기도 하고, 책임을 묻거나 각성을 촉구할 수도 있기에 인류세 담화에서 기독교는 중요한 대화 파트너가 될 것이다.

##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리쇼어링 과정에서의 경제정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세계와 가상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립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로나 세대 공적 기독교교

육의 한 방향으로 형성시민교육을 제시하였다. 김현숙(2022, 241)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독교교육이 더욱 불확실하고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직시하면서도 어려운 현실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판적 희망(critical hope)을 제안한다. 인류세와 같은 위기는 큰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다차원적 담론과 글로벌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는 오히려 기독교의 공적 소명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경험하며 한국의 기독교공동체가 이제라도 스스로를 철저히 비판적으로 성찰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희망적인 변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삼위일체-의사소통적 실천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며 공공적 사역을 수행하는데 진일보 할 수 있다. 기독교가 살림의 영성을 바탕으로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연대를 성육화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영주님의 시 「연대」에서의 “이삭”이 되기를 꿈꾸어 본다.

## 연대

이영주

어둠이 쏟아지는 의자에 앉아 있다.  
흙 속에 발을 넣었다.

따뜻한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다.

나는 망가진 마음들을 조립하느라  
자라지 못하고 밑으로만 떨어지는 밀알.

옆에 앉아 있다.  
어둠을 나누고 있다.

시집 《어떤 사랑도 기록하지 말기를》  
「문학과지성사」中

## 참 고 문 헌

- 강수택 (2020). 글로벌 팬데믹 시대, 연대영역의 변화양상. **사회와 이론**, 37, 183-230.
- [Kang, S. T. (2020). The change of solidary spheres in the global pandemic age. *Society and Theory*, 37, 183-230.]
- 강화명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윤리와 공생주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6, 305-337.
- [Kang, H. M. Economic ethics and the Co-existence(GongSaeng) in a post Covid-19 world.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86, 305-337.]
- 고정민, 박지연 (2022).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이용하는 z세대의 경험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학술저널**, 40(2), 19-32.
- [Ko, J. M. & Park, J. E. (2022).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generation Z using ZEPETO, a Metabus Platform.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40(2), 19-32.]
- 김명자 (2020). 기후변화와 펜데믹의 복합위기, 돌파구는 있는가?. **철학과 현실**, 126, 29-50.
- [Kim, M. J. (2020). Is there a way out of the combined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the pandemic?. *Philosophy and Reality*, 126, 29-50.]
- 김승환 (2022). 디지털 종교와 온라인 교회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9, 757-782.
- [Kim, S. H. (2022). A study of digital religion and online Church. *Theology and praxis*, 79, 757-782.]
- 김향미 (2020. 5. 18). 중국 '마스크 외교' 효과는 글썸. **경향신문**, 2023.01.19.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005181721001#csidxd2dfb0262490d8ca68d9e688036f486>에서  
 인출.
- [Kim, H. M. (2020. 5. 18). China's 'mask diplomacy' effect is hard to say. *The Korea Herald*. Retrieved Jan. 19, 2023, from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005181721001#csidxd2dfb0262490d8ca68d9e688036f486>
- 김현숙 (2002). **글로벌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Kim, H. S. (2002). *Christian education in the global er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Culture Foundation.]
- 김휘택 (2019). 포스트휴먼과 인간의 관계와 정체성 문제. **다문화콘텐츠연구**, 30, 163-186.
- [Kim, H. T. (2019). Relationship between posthuman and human and problem of identity. *Research on the Multi-Cultural Contents*, 30, 163-186.]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우리 국민 코로나 장기화로 '지치고 방전됐다' 58%. **넘버즈**, 110, 9-10.
- [Pastoral Data Research Institute (2021). 'Exhausted and drained' by prolonged COVID-19 Pandemic: 58% of our citizens. *Numbers*, 110, 9-10.]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교인, 전체의 20%! **넘버즈**, 109, 2-11.
- [Pastoral Data Research Institute (2021). 20% of churchgoers missing from Churches after COVID-19. *Numbers*, 109, 2-11]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82, 1-22.
- [Pastoral Data Research Institute (2021). Korean Church trust plummets from 32% to 21% over the past year amidst the COVID-19 experience. *Pastoral Data Research Institute Weekly Report*, 82, 1-22.]
- 박경아 (2013). 언캐니 개념으로 바라 본 현대건축의 미적사유와 표현경향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1), 164-173.
- [Park, K. A. (2013). A study on the aesthetic thought and expression tendency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from the concept of the Uncann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ior Design*, 22(1), 164-173.]
- 박성민 (2020. 9. 10). 여성이 더 취약한 '코로나 블루' 자살률 줄이려면..., '내진 설계' 튼튼해야. **동아일보**.

- [Park, S. M. (2020, September 10). To reduce the suicide rate of women vulnerable to 'Corona Blues', robust 'resilient design' is needed. *The Dong-a Ilbo*.]
- 박연영 (2018). 경제에 대한 재고찰: 프로이트의 「언캐니」 다시 읽기. **탈경제인문학**, 11(2), 71-102.
- [Park, U. (2018). Re-consideration on the boundary: Re-reading Freud's Uncanny. *Trans-Humanities*, 11(2), 71-102.]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00. 06. 10). 국민 64%, 21대 국회에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 요구해... 2022.10.13.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y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3970229&t=board&category=24z821507b>에서 인출.
- [World without Worries about Private Education. (2000, June 10). 64% of citizens demand resolution of education disparities due to COVID-19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Retrieved October 13, 2022, from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y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3970229&t=board&category=24z821507b>
- 성석환 (2021). 교회론의 디지털 실존적 재구성을 위한 가능성 연구: 디지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향하여. **선교와 신학**, 55, 153-184.
- [Sung, S. W. (2021). A study on the possibility for digital-existential reconstruction of ecclesiology: Toward digital 'Missio Dei'. *Mission and Theology*, 55, 153-184.]
- 신지은 (2011). 공포의 매혹: 기괴한 것으로서의 타자성에 대하여. **문학과 사회**, 11, 153-191.
- [Shin, J. (2011). Fascination of terror: On otherness as something Uncanny. *KJCS*, 11, 153-191.]
- 신현호 (2022). 메타버스를 통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70, 267-302.
- [Shin, H. (2022).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on digital storytelling in the Metaverse. *KSCRE*, 70, 267-302.]
- 양금희 (2021a). AI시대의 영성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 "관상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6, 11-48.
- [Yang, K. H. (2021a). A study on spiritual teaching in the age of AI : Focused on "contemplative pedagogy". *KSCRE*, 66, 11-48.]
- 양금희 (2021b).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택트(ontact)"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8, 41-76.
- [Yang, K. H. (2021b). A Study on "Ontact"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corona era. *KSCRE*, 68, 41-76.]
- 유재택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3, 13-37.
- [Yu, J. D. (2020). Church education in the COVID-19 era. *KSCRE*, 63, 13-37.]
- 유현주 (2011). 괴물, 여성, 기계 -프로이트의 언캐니 이론과 우리 안의 타자들. **뫼히너와 현대문학**, 37, 241-262.
- [Yoo, H. J. (2011). Monster, female machine-Uncanny of Freud and others in us. *Büchner and Modern Literature*, 37, 241-262.]
- 윤자영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돌봄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황해문화**, 112, 56-79.
- [Yoon, J. Y. (2021). A just transition of care labor in the post-COVID era. *Hwanghae Culture*, 112, 56-79.]
- 이경탁 (2020. 5. 19). 美 뉴욕 '빈촌' 코로나 치사율... '부촌'의 15배. **조선비즈**, 2023. 1. 2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1794.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1794.html)에서 인출.
- [Lee, K. T. (2020, May 19). COVID-19 fatality rate in 'poor neighborhoods' of New York 15 times higher than 'affluent neighborhoods'. *Chosun Biz*. Retrieved January 25, 2023, from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1794.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1794.html)
- 이원일 (2022). 포스트 디지털 세대에 대한 교육목회 유형. **기독교교육논총**, 70, 11-35.
- [Lee, Y. I. (2022). Types of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post digital generation. *KSCRE*, 70, 11-35.]
- 이지혜, 주정민 (2022). 메타버스 이용자의 자아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66(3), 92-138.

- [Lee, J. & Joo, C. (2022).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elf-identity of Metaverse users : Focusing on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KJCS*, 66(3), 92-138.]
- 이희옥 (2022). 메타버스 내 적대적 언행(Hate Speech)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15(1), 193-216.
- [Lee, H. (2022).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in Metaverse. *Journal of Law & Economic Regulation*, 15(1), 193-216.]
- 외교부 (2021. 8. 17).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 협력사업 시범 가동. 보도자료 21-588. 2022.11.9.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441](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441)에서 인출.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1, August 17). Launch of Northeast Asia public health cooperation framewo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ramework) pilot project. Press Release 21-588. Retrieved November 9, 2022, from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441](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441)
- 장신근 (2007). *공적실천신학과 세계화시대의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Jang, S. G. (2007). *Public practical theology and globalization Christian education*.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차태서 (2021). 포스트휴먼 시대 행성 정치학의 모색:코로나19/기후변화 비상사태와 인류세의 정치. *국제정치연구*, 24(4), 31-65.
- [Cha, T. (2021). Towards planet politics in the posthuman era: The emergency state of COVID-19/the climate change and the politics of the Anthropocene.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4(4), 31-65.]
- 최낙균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 변화와 대응 방향. *철학과 현실*, 126, 51-66.
- [Choi, N. G. (2020). The global economic changes and response strategies in the post-COVID era. *Philosophy and Reality*, 126, 51-66.]
- 최은경 (2020. 10. 14). 코로나19가 보여준 불편한 진실, 아픔조차 불평등하다. *미디어오늘*. 2023. 2. 2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76>에서 인출.
- [Choi, E. K. (2020, October 14). The uncomfortable truth revealed by COVID-19: Even pain is inequitable. *Media Today*. Retrieved February 20, 2023,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76>
- 최재천 외 (2020). *코로나 사피엔스*. 서울: 인플루엔셜.
- [Choi, J. H. (2020). *Corona Sapiens*. Seoul: Influential Press.]
- 황선웅 (2020). 코로나19 충격의 고용형태별 차별적 영향, *산업노동연구*, 26(3), 5-34.
- [Hwang, S. (2020). The heterogeneous impacts of COVID-19 across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rrangements: Real time survey evidence from Korea.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26(3), 5-34.]
- 황선희 (2021). 포스트휴먼-팬데믹 시대 시의 역할과 윤리- 감정 교육과 치유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2(2), 7-48.
- [Hwang, S. H. (2021). The role and ethics of poetry in the posthuman-pandemic era-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emotional education and healing. *JMKL*, 22(2), 7-48.]
- 황태연 (2021).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KINU 정책연구시리즈*, 21-03. 2023. 2. 23. <https://repo.kinu.or.kr/handle/2015.oak/13121>에서 인출.
- [Hwang, T. Y. (2021). Health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strategies for activating the 'Northeast Asia public health cooperation framework.' *KINU Policy Research Series*, 21-03. Retrieved February 23, 2023, from <https://repo.kinu.or.kr/handle/2015.oak/13121>
- Beck, U. (2019). *위험사회*. 홍성태 역. 서울: 새물결출판사. (원저 1986 출판).
- [Beck, U. (2019). *Risk society*. (S. T. Hong, Trans.). Seoul: Saemulgyeol Publishers. (Original work published in

- 1986.)]
- Bitman, M. et al.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 Burke, A. & Fishel, S. (2020). Across species and borders: Political representation, ecological democracy and the non-human. In J. C. Pereira & A. Saramago (Eds.), *On-human nature in world politics: Theory and practice* (pp. 33-52).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Campbell, H. A. (Ed.). (2013). *Digital religion: Understanding religious practice in new media worlds*.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Connolly, W. E. (2013). *The fragility of things: Self-organizing processes, neoliberal fantasies, and democratic activ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Crutzen, P. J. & Stoermer, E. F. (2000). The 'Anthropocene'. *The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Newsletter*, 41, 17-18.
- Cudworth, E. & Hobden, S. (2021). Posthuman international relations: Complexity, ecology and global politics. In D. Chandler, F. Müller, and D. Rothe (Ed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nthropocene: New agendas, new agencies and new approaches* (pp. 233-251). Cham: Palgrave Macmillan.
- Cullison, T. & Morrison, J. S. (2021, May 21). What has Covid-19 taught us about strengthening the DOD's global health security capacities?. *CSIS*, Retrieved December 2, 2022, from <https://www.csis.org/analysis/what-has-covid-19-taught-us-about-strengthening-dods-global-health-security-capacities>
- DDG/P Office and OECD (2020).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jobs and incomes in G20 economies. *ILO*.
- De Man, P. (2010). **독서의 알레고리**. 이창남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원저 1982 출판).
- [De Man, P. (2010). *Allegories of reading*. (C. N. Lee, Trans.). Seoul: Munhakgwa Jiseongsa.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2).]
- Ellis, E. (2018). **인류세**. 김용진·박범순 역. 파주: 교유당. (원저 2018 출판).
- [Ellis, E. (2018). *Anthropocene*. (Y. J. Kim & B. S. Park, Trans.). Paju: Gyooyudang.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8).]
- European Commission (2020). COVID 19 - EU solidarity fund. Retrieved May, 25, 2022, from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funding/solidarity-fund/covid-19\\_en](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funding/solidarity-fund/covid-19_en)
- Freud, S. (2003). *The Uncanny* (D. McLintock, Trans.). London: Penguin Books.
- Freud, S. (2003). **두려운 낯설음**. 정장진 역. 파주: 열린책들. (원저 1919 출판).
- [Freud, S. (2003). *Das Unheimliche*. (J. J. Jung, Trans.). Paju: Yeolinchaekdeul.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19).]
- G20 (2020). G20 Leaders' statement. Extraordinary G20 leaders' summit statement on COVID-19. Retrieved March, 07, 2022, from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how-the-ilo-works/multilateral-system/g20/leaders-summits/saudi-arabia/WCMS\\_740066/lang--en/index.htm](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how-the-ilo-works/multilateral-system/g20/leaders-summits/saudi-arabia/WCMS_740066/lang--en/index.htm)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Edinburg: Social Sciences Research Centre of Edinburg University.
- Hamilton, C. (2018). **인류세: 거대한 전환 앞에 선 인간과 지구 시스템**. 정서진 역. 서울: 이상북스. (원저 2017 출판).
- [Hamilton, C. (2018). *The Anthropocene: The fate of humans in the anthropocene*. (S. J. Jung, Trans.). Seoul:

- Isang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7).]
- Jang, S. G. (2021). Christian teaching as Trinitarian Kenotic praxis of love: A practical the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ractical Theology* 25(1), 58-74.
- Joffe, H. (2002). **위협사회와 타자의 논리**. 박종연, 박해광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원저 1999 출판).
- [Joffe, H. (2002). *Risk and 'the Other'*. (J. Y. Park & H. G. Park, Trans.). Seoul: Hanul Academy.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99).]
- Kearney, R. (2004). **이방인, 신, 괴물, 타자성 개념에 대한 도전적 고찰**. 이지영 역. 서울: 개마고원. (원저 2003 출판).
- [Kearney, R. (2004). *Strangers, Gods, and monsters: Interpreting otherness*. (J. Y. Lee, Trans.). Seoul: Gaemagowon.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03).]
- Kolbert, E. (2014). *The sixth extinction: An Unnatural histor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Lacan, J. 권택영 편. (1994). **욕망이론**. 민승기, 이미선, 권택영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저 1994 출판).
- [Lacan, J., Kwon, T. Y. (Ed.). (1994). *Theory of desire*. (S. G. Min, M. S. Lee & T. Y. Kwon Trans.). Seoul: Munye Chulpansa.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94).]
- McNeill, J. R. & Engelke, P. (2016). *The great acceleration: An environmental gistory of the Anthropocene since 194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oltmann, J. (1990).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적 차원의 그리스도론**. 김균진·김명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89 출판).
- [Moltmann, J. (1990). *The way of Jesus Christ: Christology in messianic dimensions*. (K. J. Kim & M. Y. Kim, Trans.).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in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9).]
- Moltmann, J. (2017).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생태학적창조론**.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85 출판).
- [Moltmann, J.(2017). *God in creation: An ecological doctrine of creation*. (K. J. Kim Trans.).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in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5).]
- OECD. (2020). Coronavirus: Living with uncertainty.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Retrieved Dec. 21, 2022, from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march-2020/>
- Osmer, R. & Schweizer, F. (2005). **공적 신앙과 실천신학**. [연세기독교교육학포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2005 출판).
- [Osmer, R., & Schweizer, F. (2005). *Public faith and practical theology*. (Yonsei Christian Education Forum, Trans.).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in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05).]
- Rheingold, H. (2000).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ic frontier*. (Rev. ed.). Cambridge & London: The MIT Press.
- Rifkin, J. & 안희경 (2020). **오늘부터의 세계**. 서울: 메디치미디어. (원저 2020 출판).
- [Rifkin, J. & An, H. K. (2020). *The world from today*. Seoul: Medici Media.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20).]
- Stabell, C. B. and Fieldstad, O. D. (1998). Configuring value for competitive advantage: On chains, shops, and network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9. 413-437.
- Steffen, W. et al. (2015). The trajectory of the Anthropocene: The great acceleration. *Anthropocene Review* 2(1), 81-98.
-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The next frontier: Human development and the Anthropocene. Retrieved November, 15, from 2021. <https://www.undp.org/serbia/publications/next-frontier-human-development-and-anthropocene>
- Ulrich, P. (2020).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윤리**. 이혁배 역. 서울: 바이북스. (원저 2010 출판)
- [Ulrich, P. (2020). *Zivilisierte marktwirtschaft. Eine wirtschaftsethische orientierung*. (H. B. Lee Trans.). Seoul: Buy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0).]

Wingfield-Hayes, R. (2021. 2. 18). 코로나: 일본에서 코로나 이후 여성 자살이 급격히 늘어난 까닭. **BBC news 코리아**.

[Wingfield-Hayes, R. (2021, February 18). COVID: Why female suicides have sharply increased in Japan since the pandemic." *BBC News Korea*.]

Youatt, R. (2020). *Interspecies politics: The nature of stat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Žižek, S. (2020). **팬데믹 패닉-코로나19는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 강우성 역. 서울: 북하우스. (원저 2020 출판).

[Žižek, S. (2020). *Pandemic*. (W. S. Kang, Trans.). Seoul: Book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20).]